

# 북스

Books



## 아름다운 풍광속 따뜻한 사람들

### 여름휴가철 맞아 에세이류 여행 서적 북돋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관련 서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 등장하는 여행서들은 유명 관광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정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류가 주종을 이룬다.

#### ■ 이국적인 매력에 빠지다

‘메구스타 쿠바’(은행나무·1만3천원)는 많은 이들의 로망인 ‘체 게바라 나라’ 쿠바에 머문 30일간의 기록이다. 책 제목 ‘메구스타 쿠바’는 ‘나는 쿠바를 좋아한다’라는 뜻.

사진가 이경씨는 카메라를 들고 체 게바라 등 혁명가들의 자취가 있는 산타클라라, 헤밍웨이의 술집이 살아 있는 아바나 등을 떠돌았다. 책에는 평범한 쿠바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 있으며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많이 알려진 쿠바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트레블 홀릭’(동아일보사·1만8천원)은 KBS의 인기 프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매주 토요일 오전10시)가 방영했던 77개 도시 가운데 가려 뽑은 것이다.

‘동아시아’편에서는 일본 나가사키와 홋카이도 하코다테, 중국 베이징과 쓰촨성, 홍콩, 타이완 가오슝 등 6개 도시가 실려 있으며 ‘남유럽’편은 그리스 크레타 산토리니,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시칠리아, 프랑스 아를, 스페인 세비아, 포르투갈 리스본을 담고 있다. PD들이 직접 6mm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방송 프로

그램을 담은 각각 2장의 DVD가 함께 제공된다. ‘허파의 집단 가출’은 만화가 허영만씨와 그를 대장으로 ‘모시는’ 7명이 함께 떠난 여행의 기록이다.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지만 ‘산’을 통해 인연을 맺어온 ‘허파’들은 지난해 9월 28일만 캐나다를 일주했다.

1천 500km에 이르는 로키 산맥을 넘은 팀원들은 야영을 원칙으로 했다. 캐나다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과 유쾌한 에피소드, 허영만씨의 익살스런 만화가 어우러져 읽는 재미를 준다. 캠핑 장비, 자동차, 항공권 등을 지원받고 떠난 허파들이 배 아픈기는 하지만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이들과 가까운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픈 마음이 생긴다.

‘지중해 in BLUE’(좋은 생각·1만1천원)는 포털 사이트 네이트가 주관한 여행 기획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줄리와 저스틴의 여행 기록이다. 우연히 보게 된 ‘산토리니’ 사진 한장에 이끌려 그리스, 이집트, 터키 세 나라를 여행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느낀 삶과 사랑, 여행 이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 ■ 우리 땅 우리 문화

남편, 아이와 함께 세계 버스 여행을 떠났던 기록을 담은 ‘미애와 루이, 318일간의 버스 여행 1.2’로 화제를 모았던 패션 모델 출신 최미애가 이번엔 두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꿈꾸는 아이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한달간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훑은 것. 이미 한차례 홀로 오토바이 여행을 떠났던 그녀는



‘메구스타 쿠바’에 실린 체 게바라 벽화.

이번에 누군가와 ‘함께’ 일주를 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라고 부르는 교회 제자 선용이와 영상을 데리고 광주, 목포, 제주, 강릉을 지나며 아름다운 풍광과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다. ‘세상 끝에서 우회하기’(시공사·1만2천원)는 그 여행의 산물이다. 도호연·박기숙씨가 함께 쓴 ‘서울 여행’(M&K·1만2천500원)은 ‘신서유람기’라는 부제처럼 창덕궁, 북한산, 명동, 성북동 좁은 골목길을 꼼꼼히 답사한 기록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1970~80년대 한국에서도 TV와 영화로 상영돼 인기를 모았던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의 원작 소설이 재번역돼 국내 출간됐다. 저자 존 제이 오스본이 하버드 법대생이던 1969년에 썼다. 후일담이 추가됐다. <황금나침반·1만원>

▲북은 손가락=제134회 나오키상 수상작 ‘음의 X의 헌신’을 쓴 히카시노 게이코의 최신작. 추리소설의 거장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가의 60번째 책. 광범한 가정의 정원에서 어린 소녀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가족과 경찰의 긴장감 넘치는 줄다리기 시작된다. <현대문학·1만원>

▲명작에서 멘토를 만나다=작가 최복현씨가 고전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주제별로 추려놓았다. 우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어린 왕자’,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레미제라블’, 사색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명사록’ 등 20편의 고전과 만난다. <살림·1만원>

▲공병호의 변화경영=경제경영전문가 공병호씨의 책. 저자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성공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없다. 변화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공병호의 창조경영’도 함께 출간됐다. <21세기북스·1만2천원>

▲위기는 의학사실의 거장 로빈 룩의 2006년 작. 의료사고에서 살인 사건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죽은 지 1년이 넘는 사체를 부검하려는 법의관과 진실을 숨기려는 세력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숨가쁘게 진행된다. 드라마 ‘CSI’ 시리즈와 존 그리섬의 법정소설을 합친 듯한 소설. <열림원·1만3천800원>

▲꿈으로 본 역사=꿈 해몽 전문가 홍순래씨가 정사와 야사 속에 낳은 꿈의 기록들을 파헤쳤다. 유성룡은 경복궁이 불타는 꿈으로 임진왜란을 예지했고, 이항복은 죽은 선조가 광해군의 잘못을 꾸짖는 꿈으로 광해군의 폐위를 직감했다. <중앙books·1만2천원>

▲듣고 싶은 음악 듣고 싶은 연주=KBS 클래식FM에서 40년 넘게 클래식 음악 해설을 해온 이순열씨가 클래식 음악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10년이 걸렸을 만큼 음악을 고르는 것도, 해설을 하는 것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입문서로도 제격이다. <현암사·1만2천원>

▲사랑의 빵을 들고 땅 끝까지=전 직립자 총재이자 전 월드컵 회장 이은규 박사의 생생구호 리포트. 월드컵 회장에 취임한 뒤 퇴임하기까지 6년 동안 구호를 위해 발글라데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트란다, 짐바브웨 등을 돌며 느낀 점들이 사진과 함께 실렸다. <아름다운사람들·9천500원>

▲지중해 철학기행=독일의 유명 현상학자 클라우스 켈트가 쓴 지중해 여행가이드북이자 철학서. 1990년 첫 출간 이래 2001년 ‘트레네스스’편이 추가된 개정판이 나왔다. 이번 완역본에는 100여종의 도판까지 포함한다. 기원전 6세기에서 16세기까지 철학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효형출판·2만5천원>

### 틀스토이 사망 100돌

### 기념 작품집 첫 출간

2010년 틀스토이 (1828~1910) 사망 100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점집의 첫 번째 작품집이 출간됐다.

작품집에는 ‘자전소설 3부작’으로 불리는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등 3편의 자전적 성장소설이 함께 실려 있다. 주인공 니콜렌카의 회상을 통해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의식을 찾아가는 도정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변화하며 겪는 시련과 고통이 주인공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성숙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원전으로는 틀스토이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출간된 작품 전집을 삼았으며, 2009년 완간을 목표로 9명의 러시아어 전문가들이 번역 작업에 뛰어 들었다.

(작가정신·1만2천원)

## 신분·목숨 내던진 남녀상열지사

###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이수광 지음



성리학이 조선시대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사대부는 여자를 몰가야 보아야 했고, 지고지순한 사랑도 경계했다. 혼례도 중매자 없이 이뤄질 수 없었고 남녀는 반드시 유별했다.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역사에는 남녀간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사랑과 화려한 연애담, 스캔들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소설가 이수광씨가 쓴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은 조선왕조 500년을 수놓았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와 추분 등 역사적 사실을 일화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사람들은 영국의 윈저공과 심프슨 부인의 사랑을 세기의 로맨스로 기억하지만 사실 양명대군도 그에 못지 않은 열렬한 사랑의 주인공이다. 태종 이방원의 아들

인 양명대군이 동생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했다고 야사는 기록하고 있으나, 양명대군은 유부녀 여러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태종의 명을 거역하다 결국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인물이다.

세조의 후궁이었던 덕증은 임영대군의 아들 이준에게 연서(戀書)를 보냈다가 발각돼 교수형을 당했다. 그녀 때문에 편지를 전한 궁중 내인들과 환관 4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근친상간과 동성연애도 은밀히 이뤄졌다. 세자빈이었던 봉씨는 궁녀 소생과 사랑을 나누다 발각돼 대궐에서 쫓겨났고, 왕실의 인적인 구씨는 조카의 아이를 갖기도 했다.

저자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한몸에 지닌 점을 심층 활용해 남녀를 유린하던 사방지, 7세 아이의 출산 등 연애기담도 소개한다.

또 지고지순한 부부의 정을 나뉘던 삼의당 김씨부부의 영원한 사랑, 조선최고의 로맨티스트 심노승 등 사랑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다산초당·1만3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 공인중개사 12차(월~토) 시험일: 10월28일
  - ▶ 주택관리사 12차(월~토) 시험일: 10월21일
  - ▶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함) 주말반(토·일) 시험일: 10월21일
- 모집대상
  - ▶ 혼연도중 또는 혼연후 1월 이내에 이직할 예정인 분
  - ▶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인 분 40세 이상인 분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분 1.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기타사항
  -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속생 정원제 모집
  - ▶ 수수료 100~80% 환급
- 접수
  - ▶ 수강일자: 혼연상담→혼연수강신청서 작성→혼연기회에 제출→수강

**1-컴퓨터과정-**

- 모집과정
  - ▶ 정보화기초과정 윈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틸리티활용
  - ▶ 정보화기초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 모집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 ▶ 수수료 100% 환급
- 접수
  - ▶ 수강일자: 혼연상담→혼연수강신청서 작성→혼연기회에 제출→수강
  - ▶ 수업시간
    - ▶ 월수강 19:00~21:00(기초) ▶ 화목 19:00~21:00(기초1)

● 노동부직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면 ☎224-4580, 232-1088

**특보: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7.9 급 공무원 대특강**

**일제무직 2700명** (1차:9월6일 시험(1200명 모집) (사상초우) (사상초우)  
(2차:11년초(1500명 모집 예정) (대모집))

**全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개강 8월 1일**  
**南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 하반기 시험 주야반 모집**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7급 공무원**

거점직중·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 군무원, 교원직, 농업직, 관공직, 보건직, 출판관리직, 기술직

**7.9급 공무원 특수반 첫진도** (7개교) **전날일행·교정문제풀이** (1개교)

**일제무직 3,000여명** **전남교육행정 문제풀이** (1개교)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8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 (전직종 첫진도 = 사전예약반수 중)

www.hanilexpress.co.kr

**즐거움 제주여행은 2시간만에 운항하는 초고속 크루즈 여객선**

**한일카-웨리호로!**

**HANILEXPRESS**

**HANIL EXPRESS 출항시간**

**원도→광주 무료 셔틀버스운행**

**한일카-웨리 1호**  
08:20 제주출항/제주월요일휴항  
15:30 원도출항/원도월요일휴항

**한일카-웨리 2호**  
17:00 제주출항/제주월요일휴항  
12:00 원도출항/원도월요일휴항

**(주)한일고속 한일카-웨리호예약은**

- ◆ 여객예약: 061)554-8000 (http://www.hanilexpress.co.kr)
- ◆ 차량예약: 061)554-0045
- ◆ 과장강역순: 011-673-7696
- ◆ 일반화물: 061)554-3265